

글로벌 파트너스

# GLOBAL PARTNERS



2023. Oct. / **Vol.80** [gpinternational.org](http://gpinternational.org)





2023 하반기

# GLOBAL PARTNERS

글로벌 파트너스

## CONTENTS

**선교사칼럼 / GP USA 대표 배선희 1**

**Missionary Column 2**

**인터뷰 / 실험실의 공대생, 목회자 되다 \_ 안창훈 목사 3**

**선교사 행전 / 내게 주신 가나안땅 \_ 조동석 선교사 6**

모잠비크에서 목자로 살아가기 \_ 베니시오 선교사 12

투르크청년들이 일어설 그날 \_ 이김 선교사 16

우당탕탕 첫번째 임기 이야기 \_ 김은진 선교사 20

**튀르키예 리포트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_ 김요셉 선교사 24**

**MK Story / 제약된 삶, 제한되지 않은 축복 \_ MK 박준용 30**

**선교뒷마당 / 소리없는 전쟁터의 행정선교사 \_ 한경성 선교사 34**

**GP 본부소식 35**

**선교사명단 & 후원 안내 37**

**표지사진 / 모잠비크의 세례식 집례 현장**

# 또 하나의 동행

GP USA 대표 배선호 선교사

GP 미국본부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매일 하는 기도에는 당연히 GP 선교사들이 나누는 기도제목들이 들어 있다. 최근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중에는 한국어 이름이 아닌 이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Global Partners 라는 이름같이 선교사의 문화적·인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는 내 개인적 가정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왔고 아내는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왔다. 우리에게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내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하고 나는 한국어로 말한다. 아내와 나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소통하고 아이들은 서로 영어로 말한다. 장모님이 오시면 우리 가족의 언어는 중국어로 바뀌고 한국에서 어머니님이 오시면 나와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통역을 한다. 문화적으로 한국/중국/미국의 짬뽕이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문화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나 20여년 전 아내와 결혼할 때만 해도 한국의 친척들에게 우리 결혼은 ‘국제결혼’이라고 부를 만큼 낯선 것이었다.

우리가 GP 선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06년 당시 내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미국의 한인교회 담임목사님을 통해서였다. 그때까지 우리 부부에게 GP는 약간은 낯선 한국 단체였다.

당시 나와 아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 함께 할 선교 단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 한국말이 어려운 아내에게 한국 선교단체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택을 위해 기도할 때 아내는 선뜻 GP 쪽으로 마음을 열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당시 GP 선교회에 몇 안되는 한국인\*비한국인 커플이 되었다.

해외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며 아내와 나는 각각 가장 친숙한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떠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우리 부부에게 또다른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주었다. 현지인들과는 현지어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 동료선교사님들은 아내와 현지어로 소통을 해 주셨다. 선교회 컨퍼런스 때면 영어에 능통한 선교사들이 통역을 해 주셨고, 영어가 편하지 않은 분들도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어 주시곤 했다. 대개 여 선교사들이 도와주었기에 아내는 GP의 여자 선교사님들은 모두 천사 같다고 말한다.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내게 아내의 문화는 이미 친숙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부부에게는 ‘동행’의 시간이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 사고방식을 인정하고 맞추며 살아왔고 지금도 서로에 대해 더 배우며 살아간다.

GP도 문화적으로 그 폭을 더 넓혀 가면서 점점 더 타민족 선교사와 함께 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 부부가 선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GP 선교회에 소망을 갖는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동행’이 하나님께서 GP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는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 Another Companion

Sunho Bae (GP-USA National Director)

The US Headquarters of the Global Partners (GP Mission) starts each day with meditation and prayer. Naturally, the daily prayer topics include those shared by the missionaries of the GP Mission. During these prayers, it is not uncommon to come across non-Korean names, indicating that the cultural and racial diversity of missionaries within the GP Mission is expanding. This change holds a significant meaning for me, especially because of my personal family background.

My family is a multicultural family. I was born in Korea and my wife was born in Taiwan and we are currently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two sons, and my wife speaks English to them while I speak Korean. Between my wife and I, our communication is a mixture of English and Chinese and the children speak English with each other. When my mother-in-law visits, our family language switches to Chinese, and when my mother visits from Korea, my children and I act as translators between my mother and my wife. Culturally, it's like a blend of Korean, Chinese, and American influences.

In the diverse cultural landscape of the United States, it is quite common for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o marry. However, when I got married to my wife 20 years ago, it seemed unfamiliar to my relatives in Korea, and they referred to our marriage as an “international marriage.”

After getting married, we prayed together for a missionary organization to work with in the future, discussing Korean missionary organizations was not easy with my wife, who was born in Taiwan, raised in the United States, and had difficulty speaking Korean. We continued to pray and seek guidance in making this decision. Despite some concerns, my wife opened her heart to the GP Mission. The vision of the GP Mission, along with my wife's consideration for me who grew up in a Korean cultural background,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our decision. As a result, we became one of the few Korean-non-Korean couples in the GP Mission at that time.

After many years in the mission field, my wife's culture has also become a familiar part of my life. However, before reaching that point, we went through a phase of ‘accompanying.’ During this time, we lived by acknowledging and adapting to different cultures and ways of thinking, and we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 even now.

As the GP expands its cultural horizons, we will have increasing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missionaries from different ethnicity in GP. Reflecting on the time my wife and I have spent growing within the GP Mission, I feel hopeful for its future. I aspire for the new form of “accompanying” that God has allowed us to partake in, to become a fresh channel through which God's blessings can reach the nations through the GP Mission.

# 실험실의 공대생, 목회자 되다

GP USA 신임 이사 안창훈 목사



**Q. GP 선교회의 미국 이사로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늘푸른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창훈 목사입니다. 2008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아내와 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전임 사역을 하던 중에 CTS에서 미국 아주사 신학교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선발되면서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탈봇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4년을 머문 적

이 있어서 완전히 낯선 환경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학교를 마치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2012년 늘푸른선교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섬기게 됐는데, 당시 담임목사님이 2013년에 사임하시면서 교회가 담임목사를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2015년에 제4대 담임목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8년간 늘푸른선교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Q. 목회자의 삶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 신앙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섬기며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체험한 것도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목회자의 삶을 꿈꾸지는 않았습다. 심지어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앞으로 청년부 안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실 때에도 저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하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저는 공대생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주로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당시 실험실 분위기는 크리스천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차를 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교회 단기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때마침 실험실에 문제가 좀 있어 단기선교에 대한 말 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는 단기선교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죠. 그 싸늘한 분위기 속에 교수님께 단기선교 일정을 말씀드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믿음의 발걸음 후에는 '다녀왔더니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결말이 있어야 하는데,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실험실에는 제 짐이 보따리로 쌓여 있었습니다. 다시 실험실에 복귀하게 해 달라고 교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다. 그동안 논문을 써 왔던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제 졸업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단기선교를 갔던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나자 지도교수님께서 다시 저를 받아 주셨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교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중에 예수를 믿고 전공이 신학으로 바뀌는 학생을 보면서 일부러 모질게 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장로회 신학대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을 때 '이제 왔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지금은 부모님이 K1국에 선교사로 계신다는데,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해 느끼시는 마음이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델입니다. 제가 대학원시절 인생의 부침을 겪을 때 부모님께서도 인생의 목적을 진중하게 다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오던 2008년에 부모님은 V국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11년을 섬기시고 2021년에는 K1국으로 사역지를 옮겨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V국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기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지 결정하도록 돕는 사역



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은퇴 후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숙고하셨습니다. 그 답이 선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갈렙을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Q. 늘푸른선교교회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시는지요?**

올해 저희 교회는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당시 영문이름은 Mission Community Church였습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선대 목사님께서서는 선교를 교회의 중요한 핵심가치로 인식하셨고 지금까지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1년의 시간동안 질곡의 시간도 있었지만 파송선교사에 대한 후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community 안에서의 선교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깊은 복음의 경험에서 나오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초점을 하나님나라 복음에 맞춰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생명력을 더해 주셨고 최근 들어서는 성도들 사이에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양로원을 찾아가서 음악으로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

면서 교회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홈리스를 돕는 사역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교회가 주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느낍니다. 교회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사로서 GP 선교회에 바라시는 점과 선교적 비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올해 파송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GP 선교회는 이미 410여명의 선교사들이 4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역도 다양하여 지역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42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현황을 알 수는 없더라도 각 사역을 구분해서 그 특징과 필요를 이사 교회에 쉽게 설명해 주면 교회들이 단기선교를 준비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할 때 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MZ 세대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교회 안의 MZ세대 선교관심자들을 향해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선교지의 상황과 섬길 수 있는 내용, 단기로 섬길 때 준비해야 될 조건 등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사로 섬기는 동안 이런 부분들을 GP 선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진행: 배선호 GP USA 대표





#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조동석 선교사(러시아)



##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다

저는 직업군인이셨던 강인한 아버지와 냉철하고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장래에 전투비행조종사가 되어 단란하고도 호탕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친이 사업을 접고 고향인 전북 김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는 기독교학교인 송실중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인도로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 남부교회(고 조광채 목사 담임)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2때 중고등부

하기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제게 임하면서 제 모든 죄를 한번에 다 드러내셨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마치 큰 불덩어리 같아서 저는 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며 울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제게 큰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네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하고 소리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즉시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와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

습니다.

그 후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진로를 여쭙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고2 겨울에 참석한 동계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타문화권 복음전도자로 부르심을 체험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의 결국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일을 전심으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마음에 간직했던 파일렛의 꿈을 기꺼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 갈대아를 떠나 주님이 지시하신 땅 러시아로

그 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지구촌 선교회에서 총무로 섬겼습니다. 한국해외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 인턴십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제게 러시아를 선교지로 지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복음을 받은 곳ियो,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키워준 부모님과 친척과 형제들과 친구들이 있는 저의 요람이자 모든 것이 있는 땅이었지만 곧 제가 떠나야 할 갈대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히11:8)' 아브라함의 순종은 저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희 마음에 쓰라림으로 남았던 일은 저와 아내뿐 아니라 주애와 주경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부어주셨던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노부모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 부모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이 더없이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떠남은 그것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기도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가서 살아야만 한다. 이제 모국은 마음속의 모국은 될 수 있을지라도 선교지로 떠나는 순간 내 삶에서 모국이 될 수 없다. 혹 내가 모국을 방문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주소는 러시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맡기신 백성은 모국의 동족들이 아니라 러시아 백성들이다.'

광활한 땅 러시아로 출국하는 미미한 저희 가족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자를 미쁘신 줄 알고 그의 인도하심과 뜻을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러시아 거민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큰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가 저희 가족의 조그마한 선교사역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고, 부모님들에 대한 위로와 평안과 장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러시아인들의 종이 되고자 1992년 10월 30일에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 선교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선교지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준비하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흠족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땅을 주셨습니다. 제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혼의 추수지를 저희에게 선교지로 주신다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B.C.2000년 당시 가나안 땅은 그야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사람이 먹는 빵 외에 그의 제자들도 잘 모르는 양식을 먹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굶주림 가운데 사셨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배부름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란 이루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디보다도 많은 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굶주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지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양식은 바로 선교해야만 하는 땅,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 소련의 붕괴, 공산권 선교의 문이 열리다

1992년도에 선교지 현황을 연구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전 세계 기독교



현직 선교사의 93%가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단지 7%의 선교사들만이 미전도 종족과 소위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공산권은 가장 사역이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혀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가장 위협한 원수로 보고 선교사역에 대한 통제를 다른 어떤 곳보다도 철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세계 인구의 40%, 아시아 인구의 55%가 살고 있는 공산권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저희 세대에 행하신 가장 커다란 기사로서, 바로 공산주의의 수장이었던 구소련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시고, 이들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0여년 이상 닫힌 땅 공산권의 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한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당하며 신앙 생활하던 성도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산권 복음화의 과업을 바로 저희 세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관문 돌파와 준비

저희 가족이 도착한 러시아 모스크바! 먼저 아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집근처의 유치원을 교섭해서 다섯 살짜리 딸 주애와 세 살짜리 주경을 다니게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언어습득에 탁월성을 보인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지 이틀 만에 저희 부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더니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흐바짖 가바랏”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들이 유치원에서 떠들 때 들은 말로 ‘잔소리 하지 말아요’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스크바 허니문 기간은 일주일 이 안 돼 끝나버렸습니다. 첫 며칠간 아이들은 눈썰매에 태워서 유치원을 데려다주는 것을 환호했지만 곧 울면서 유치원은 절대로 안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나중에 보니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했고, 게다가 덩치 큰 러시아 아이가 주경을 때리고 늘 괴롭혀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저희 아이들에게 야단을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억지로 데려다 주면서 아내도 눈물지은 날들이 참 많습니다. 초창기에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이들은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대학의 언어학

교를 다니며, 본격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그 복잡하고 방대한 문법체계로 이제 저희 머리에서 연기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7개월간의 언어과정을 마치고, 1년 반이 지난 1994년 5월에 모스크바시의 마트베옌스카야구에 교회개척을 위한 예배장소를 임대하기 위하여 노어사전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각 기관장들과 만남을 가졌고, 마침내 극장을 임대하여 매일 전도지를 돌리면서 개척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예배를 드리기 1주일 정도 앞두고 극장이 수리로 임대가 어렵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개척예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예정이어서 저희 부부는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며칠 동안 식사도 못하고 온종일 그 지역을 살살이 뒤지며 예배처소를 찾아 다녔습니다. 당시엔 정부시행령으로 인해 학교는 특정 종교기관에 임대를 불허하던 시기라 학교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장소를 찾다가 못 찾고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교회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희는 눈물로 감사 찬양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창립예배일에 장대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70여명이 예배에 참석하여 공산권 붕괴 후 이들의 영적갈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예배처소와 예배형식이 러시아인들에게 익숙한 정교회 모습이 아닌 고로 1주일 후에는 100명은 사라지고 70여명만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 서툰 러시아어도 뛰어넘은 영적 갈급함

약 1년이 안되어 교회리더들 성경공부를 하는 중에 실비아집사가 한 비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목사님, 교회 개척 초기에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후에 저희는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해한 것을 서로 나누자! 아르메니아인 실비아는 설교 중 이 부분을 이해했고, 러시아인 성도는 다른 부분을, 타지키스탄인 성도는 또 다른 부분을, 아제르바이잔인 성도는 저 부분을 이해했고...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것이였다.'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 다. 다들 동의한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리며 박수를 쳤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러시아어를 아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예배설교시간에 꼼짝도 안하고, 큰 눈을 부릅뜨고 귀를 종긋거리며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이 한 말씀이라도 이해하고 받으려고 집중하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콩나물이 시루에서 흘러내리는 물만으로도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열심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해갔고, 저 자신도 러시아의 목사로 성장을 해갔습니 다. 만약 성도들의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인내와 열심히 없었다면 저희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도 성장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 다. 아무튼 저는 러시아어로 교회개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미숙하지만 러시아어로 신학교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제 노력도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도들과 저희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당대에 복음화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주제별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성도들을 심방하여 구원 상담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며 재미있게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부부에게는 늘 큰 탄식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서 언제 러시아를 당대에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도에 모스크바 북쪽 5백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한 볼로그다주의 감독인 뽀뜨르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초청으로 몇 차례 볼로그다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하게 되면서, 뽀뜨르 목사가 복음적이면서 진실한 목사님인 것과, 교회 성도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심자들이 불과 몇 개월 안에 전도자와 설교자가 되고, 교회에서 공동체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들은 마치 목회자처럼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었고, 볼로그다 교회는 볼로그다 주에 약 3년동안 13개 지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전도에 대한 뽀뜨르 목사님의 열정과 각 도시의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희는 현지 교회들과 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저희 당대에 복음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신뢰 속에 볼로그다 주와 뽀보프 주에 27개 교회



훈련원시절 가족



백러시아 집회



미국시애틀 집회



복음신학교 사역



백러시아 집회





학교의 가을 풍경



박크잘 전도전회



G&G 경주수양관에서



조동석 과수회 선교사 부부

를 개척한 뽀뜨르 감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저는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당대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 사역은 초창기 첫 10년여 사역기간에 주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 “할렐루야”로 소통한 조선족 상인

1999년에는 조선족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약 3년간은 일주일에 2일을 기차에서 잠을 자는 삶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모스크바 교회에서 예배드린 후에는 밤 10시 40분 열차로 팜보프로 출발하여 팜보프 기차역에 아침 8시10분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마치고 나면 월요일 밤 10시 열차로 모스크바로 가서 그 다음날인 화요일 새벽 05:30분에 도착하여 지하철이 열리는 06:00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팜보프시에서 중국 조선족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에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러시아로 장사하러온 조선족들이 팜보프에서 중국시장을 형성했는데 중국시장은 러시아 상점보다 물건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러시아인들이 중국 노천시장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팜보프 교회 성도인 다찌아나 집사(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당시 중국인들에 의해 생겨난 노천시장에 갔다가, 중국인 장사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나 러시아어로도 의사소통이 안되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만국공용어인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중국인 여자 상인이 “아멘”하며 화답을 하길래 “월요일에 꼭 우리 교회에 와라. 당신들 동족인 다니엘목사님

이 오신다.”고 하여 이들을 데려와 제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그곳에 있는 모든 조선족 상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초청된 중국 조선족 상인들이 20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여 한국의 소식들도 전해 주고, 아리랑 및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 영접한 조선족들과 함께 땀보프 교회 산하에 중국조선족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중국본토에서 러시아 서남부 땀보프시까지 이들을 이끌어내셨고, 다른 한편 한국에서는 저희부부를 러시아 모스크바 사역에서부터 뽀뜨르 감독을 만나 땀보프까지 오게 하셔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 고난을 넘어 사역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

1996년에는 뽀뜨르 감독과 루빙감독을 통해 그들 교회 공동체들을 위한 사역자를 육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땀보프교회 성전건축이 진행되었고, 그 교회 안에 목회자 재교육과 육성을 위한 신학교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많은 부분의 건축헌금을 한국교회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어갈 무렵, 땀보프교회 현지 감독의 욕심으로 인해 신학교사역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절한 배신감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올 힘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광채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다시 일어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위로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저희의 사역은 3개 주(oblasti)에 국한된 지도자 육성사역에서 전 러시아연방 교회 지도자를 육성하는 러시아 복음주의 교단 신학교를 운영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러시아내 코미공화국 집회를 섬기고 귀가하던 2013년 11월 24일 젊은 러시아 음주 운전자가 중앙차선을 넘어와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 차례 개복수술을 하며 사경을 헤매다 한국으로 항공 이송되어 회복하기까지 약8개월간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일이 사건들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계층과 다양한 민족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모양의 사역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연단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불같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부부를 주님의 편한 파트너로 다듬어 주셨고, 현재는 러시아 타 교단장들과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 올려주셨습니다.

다. 마치 육·해·공군을 다 경험한 지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진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디게 하셔서 오래 참음의 옷과 사랑의 옷을 입혀주셨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의 사역은 소련 붕괴와 더불어 미국 및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등 여러 나라로 집단 이주를 한 수많은 슬라브인 디아스포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민자들 중에는 특별히 기독교교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님은 순교자들의 후손인 이들을 마지막 시대에 미주와 유럽인들의 구원과 교회부흥을 위해 섭리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러시아와 구소련권의 신속한 복음화와 미국과 유럽교회의 부흥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왔던 저희 부부의 기도 에 응답하셔서 2010년부터 미주 슬라브인 디아스포라교회에서 집회사역을 연 1회씩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매년마다 미국을 방문하여 미서부·동부·남부지역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사역을 위한 세미나와 부흥집회를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불가리아에서 발칸반도국들의 목회자를 섬겼으며, 불가리아와 독일의 슬라브계 디아스포라 교회 집회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고국에서 31년, 러시아에서 31년

저희 부부는 고국에서 태어나서 31년의 세월을 보냈고 러시아에서 31년째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 선교지에서 보낸 세월이 고국에서 보낸 세월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저희 품을 떠났고, 그 대신 이곳에서 복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저희 삶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부르짖던 비전 성취를 저희 눈으로 목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미흡하고 부족한 종들인 저희를 지금까지 기도과 사랑과 은혜와 귀한 후원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팔삭둥이같이 미흡한 저희부부를 주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친구로 불러주시고 슬라브인들을 섬기게 해 주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 모잠비크에서 목자로 살아가기

베니시우 선교사(모잠비크)

## 나의 목자 김선웅 목사님

제가 고 김선웅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 안 되었던 스물일곱 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선웅 목사님은 현재를 넘어 제 미래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김선웅 목사님은 상처 입은 양을 만난 목자처럼 저를 아껴주셨고, 제가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4년 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거친 후, 김선웅 목사님은 초문화권 훈련을 위해 저를 파라과이로 보내셨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선교지에서 만난 멘토

2007년 8월, 제가 모잠비크로 들어가기 전 약 40일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곳에서 이상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광대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 충격을 겪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보호하시며 저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타국에서 여러 문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저의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동역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저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2023년 교회



모잠비크를 방문한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부부



선교사 임명식



2013년 세례식현장

### 결혼식과 목사안수식

2010년, 저는 모잠비크 여성인 기다와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수는 적지만 지혜롭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다가 없었다면 저는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에는 저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상범 목사님을 모잠비크로 파송하신 박상철 목사님께서 결혼식과 목사 안수식에 증인으로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고 이상범 목사님과 김선웅 목사님께서 함께 모잠비크 감리교회의 최초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셨습니다.

###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1년 후에, 저희는 모잠비크의 중북부 지역으로 파송받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해 왔습니다. 현지인들의 위협과 배신 뿐만 아니라 도난 상황 그리고 아기를 해산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세 개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세 개의 주에 26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이와 연장자들을 교육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로 세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사로서 저는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 프로젝트 작성법,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부자, 기업가 및 정치 지도자, 치료 주술사, 이슬람 교도들과의 상호작용도 그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술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목자로서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 삶의 참된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굳게 서리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곁에서 함께 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곳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위로와 인도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지를 지혜롭게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싸움까지 굳게 서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투르크 청년들이 일어설 그날

이김 선교사(K국)



어느덧 저도 사역지에서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지나 왔네요. 현지의 삶을 나누려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하루 하루가 모여 어느덧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시간들은 마치 영화속의 장면들 같이 제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장면들 중에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 사진들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 낮선 환경에서 모든 처음을 함께 했던 집

이 사진은 저희 아들과 딸의 사진입니다. 선교사로 처음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르심의 땅을 밟은 2018년 2월, 그때는 저희 둘째이자 막내 딸이 한 살하고 4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아직 어린 딸과 이제 세 살 2개월된 첫째 아들이 처음 구한 집의 침대에 등을 대고 앉아서 함께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이때 구한 집은 시장이 가깝고 위치가 좋아서 아내와 함께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언어를 배우던 학교도 가깝고 위치에 비해 월세가 저렴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이집에서 1년 정도밖에 못 살고 언어 학교를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갔지만 아직까지 저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선교지에서 처음 살았던 이 집입



한살, 세살이었던 아이들

니다. 이 집에서 처음 아이들을 현지 유치원에 보냈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현지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미국을 떠나 낯선 문화 환경 속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나름 적응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겠지만, 육아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함께 했던 저희 부부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니어서 종종 부부사이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땅이니만큼 열심으로 현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했는데 어떤 때에는 식사후에 손님들이 아내의 웃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가져가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집 뒤에는 조그만 놀이터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함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집 앞에 있던 조그만 과일 가게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늘 들렀던 조그만 가게도 생각납니다. 선교사에게 선교는 삶이라는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때는 처음 선교지에 와서 현지의 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선교지에 처음 도착한 타문화 사역자는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어울려 간단한 영어와 손짓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때가 저희에게는 참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스스럼 없이 저희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주었던 현지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고맙고, 또 그렇게 부모를 따라 선교지에 함께 온 저희 아이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이사하고 난 후에도 자동차를 타고 이 동네를 지날 때면 늘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집 기억나? 너희들 어릴 때 살던 집이잖아'. 사역 초년생이었던 저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1년의 시간을 안겨준 귀한 집입니다.

### 새로운 도전, 언어 배우기

또 하나의 장면은 언어 학원입니다. 처음 등록했던 언어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곳으로 학원을 옮기게 되었고 그 학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새롭게 옮긴 언어 학원 사진입니다. 그 학교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언어 학원이었습



새로 옮긴 학원



시골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니다. 저희는 그 선교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에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처음 학원을 시작하시면서 학원 로고를 만들 때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 학원 물건들을 옮기고 꾸밀 때도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구한 집 바로 앞에 사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소식을 나누던 좋은 선배님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은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시고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이별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희에게는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지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역하는 선배 사역자분, 늘 저보다 열심히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 가정은 저에게 도전이 되고 배움의 기회가 되며 나를 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2년의 시간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선배 사역자들은 언어를 참 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언어가 잘 늘지 않는지 실망하고 힘들어 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고통은 새로운 언어로 인해 풀려졌습니다. 집에서 학원을 가는 길에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에는 말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외국인인 제가 다가가도 그분들은 스스럼 없이 저와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언어수업 중에 배운 단어와 표현을 써 가며 소통이 시작되고 그분들의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면서 서서히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 저희도 녹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지인들과 소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저희의 선입견들을 바꿔 주셨습니다. 처음 이들을 알았을 때는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말을 안 듣고, 판단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속 마음을 알게 되니 그들도 우리처럼 정이 많고, 가족을 너무나 아끼며 사랑하고, 삶 속에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문화 사역자로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있어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삶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리라

마지막 사진은 지금 저희가 시골마을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수도에서 사역을 해 오고 있었는데 수도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시골에도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 시골의 현지인들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현지 목회자와 타문화 사역자가 함께 섬기는 시골 현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주일에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팀을 세우며 현지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나라에는 투르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을 위해 특별히 더 많은 기도와 섬김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비록 이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지만 강인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민족성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것을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새벽 이슬 같은 투르크 청년들이 중앙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비전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으로 새로이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영혼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 어린 아이들과 교체하고 미래의 영적 일꾼을 세우는 일이 현재 저희의 할 일

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서 앞으로 함께 사역할 현지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저희는 하루 하루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 입니다.



# 우당탕탕 첫번째 임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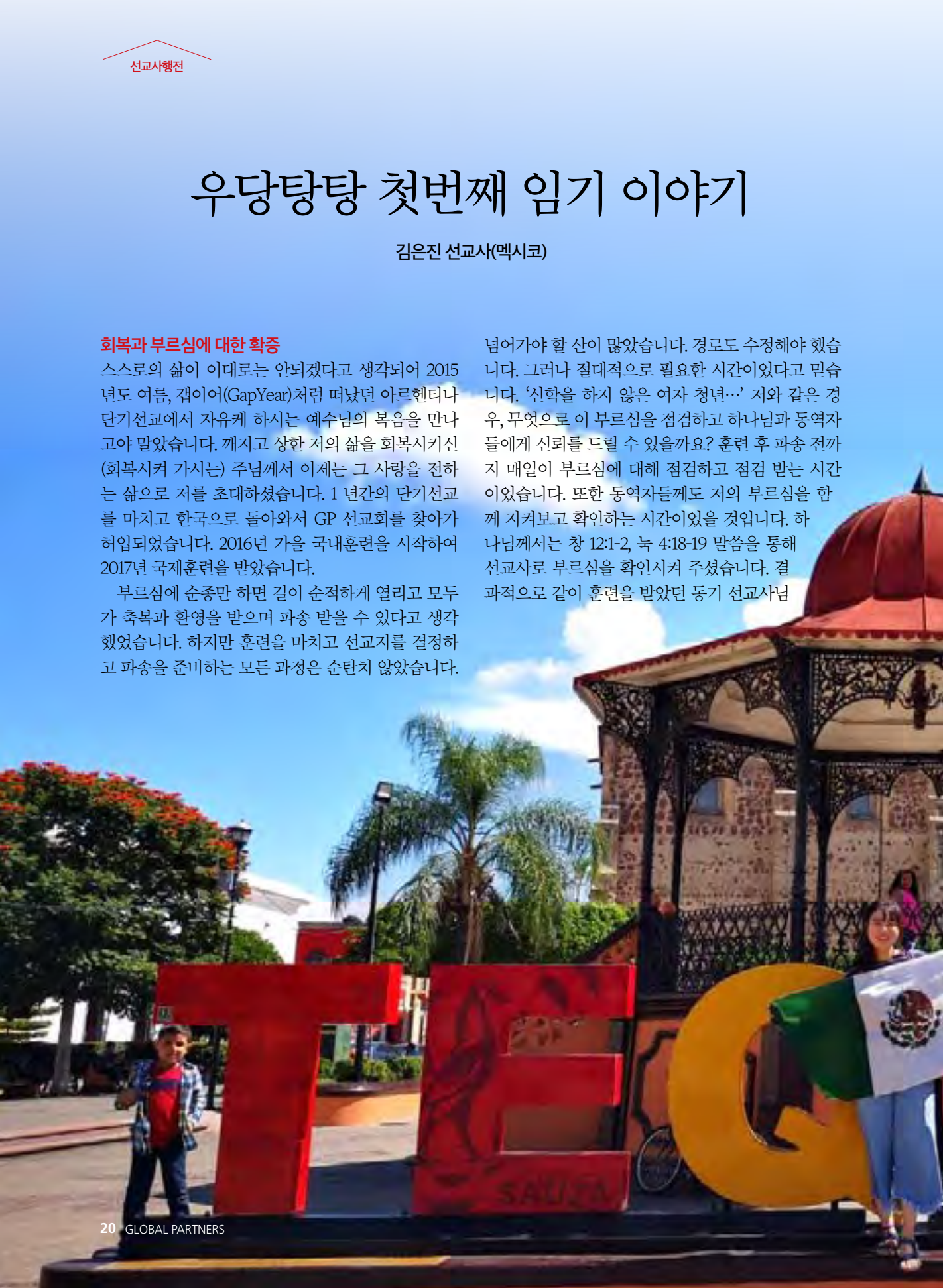
김은진 선교사(멕시코)

## 회복과 부르심에 대한 확증

스스로의 삶이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2015년도 여름, 갭이어(GapYear)처럼 떠났던 아르헨티나 단기선교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깨지고 상한 저의 삶을 회복시키신(회복시켜 가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1년간의 단기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GP 선교회를 찾아가 허입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 국내훈련을 시작하여 2017년 국제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길이 순직하게 열리고 모두가 축복과 환영을 받으며 파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를 결정하고 파송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넘어가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경로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여자 청년...’ 저와 같은 경우, 무엇으로 이 부르심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훈련 후 파송 전까지 매일이 부르심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역자들께도 저의 부르심을 함께 지켜보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 12:1-2, 눅 4:18-19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훈련을 받았던 동기 선교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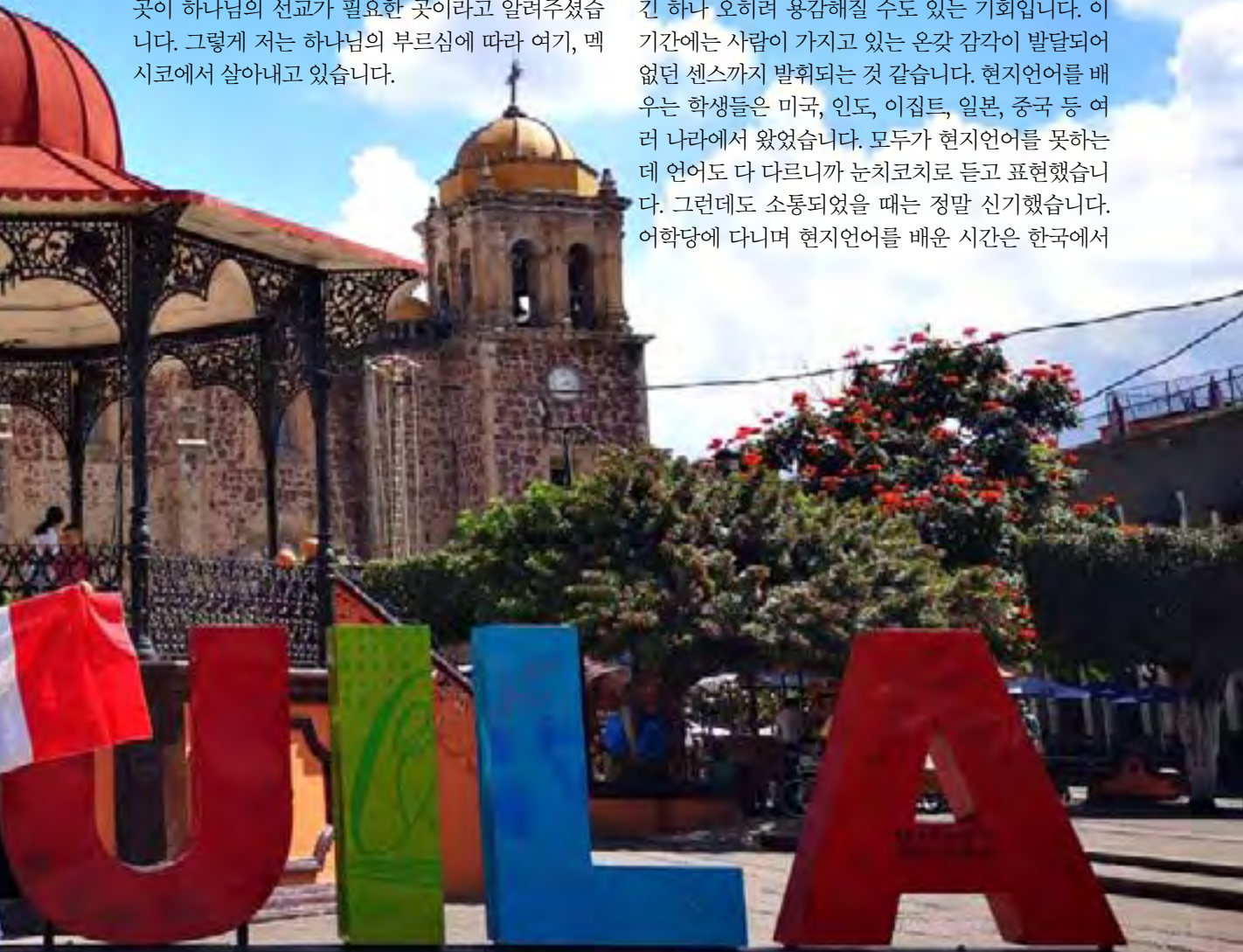
들보다 1~2년은 늦게, 그러나 마침내 2019년 6월에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송 전 멕시코를 탐방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기는 했지만, 정작 파송 나올 때까지도 선교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곳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성도의 입을 통해 카톨릭 국가인 멕시코에 왜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는 모든 멕시코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모르는 눈 뜬 장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진 사회, 가정,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곳, 살리고 가르쳐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 멕시코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 어학당에서 세계를 향한 감각을 확장하다

2019년 6월 25일,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출발부터 마음을 졸이며, 진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도 선배선교사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멕시코에 기쁘게 첫 발을 디뎠습니다. 선임들께서는 집 구하기, 어학당 등록, 비자 발급 등의 여러 번거로운 일들을 '당연히 선임이 도와주는 거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현지에 차근차근 잘 적응해낼 수 있었습니다.

초임 선교사의 가장 큰 첫 과제는 현지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알아 듣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인 건 하나 오히려 용감해질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감각이 발달되어 없던 센스까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현지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미국, 인도, 이집트,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왔었습니다. 모두가 현지언어를 못하는데 언어도 다 다르니까 눈치코치로 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소통되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학당에 다니며 현지언어를 배우 시간은 한국에서







교회 반주 가르치기

만 살아온 세계 세계를 향한 시각을 넓히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 하숙집에서 멕시코 문화 적응하기

저는 어학당 근처의 현지인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초반 약 9 개월 동안은 하숙집 주인들과 별 교류가 없어서 하숙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이사하게 된 하숙집 아주머니는 약 20 년이 넘도록 하숙을 해오신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숙하는 동안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조그마한 소음에도 예민하여 소리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는 반면, 멕시코는 밤 늦게 혹은 새벽까지 크게 음악을 틀며 파티를 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새벽 3~4 시까지 들려오는 음악, 파티 소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 못 드는 여러 밤을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 소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이곳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소음에도 잘 잡니다.



목장 모임 기도

열심히 언어훈련에 매진하던 2020년 초, 멕시코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팬데믹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믿지 못해 개인 방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정부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멕시코는 치사율 세계 1위, 사망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 온지 1 년도 채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있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개인적으로도 삶과 영성에서 기분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목장의 청년과 청소년 멤버들

### 못하는 요리로 청년목장 섬기기

대부분의 멕시코 교회는 청소년·청년부의 개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고등학생때 아이를 낳고 미혼모·미혼부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배경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



한국어 수업

다. 그래서 2021년 연말에 집을 렌트했고, 2022년 1월에 가정교회 청년목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친구들까지 함께하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에서는 집을 오픈하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이 중요한데, 저는 먹기를 잘하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대접할지, 이 음식을 좋아할지'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매주 다른 음식을 준비해야하는 일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사역이자 노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장 사역을 통해 복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약 20명,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초대되어 왔으며, 이 중 2명은 목장을 통해 교회로 연결되어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중 3명은 꾸준히 목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서로 부대끼며 말씀 안에 다듬어져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하는 장이 되고 청(소)년들이 영혼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Bring Up Mexico' 와 협력하여 한국어와 피아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업은 들었지만 교회에는 오지 않던 세 명의 친구들이 2023년 1월부터는 공식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의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비전이 심겨지고,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소원합니다.

### 휘어진 시선을 통해 발견한 십자가

저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쁨, 삶의 목적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첫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멧기열에 걸려서 기절할 적도 있었고, 식중독에 걸려 탈수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에 갑자기 왼쪽 눈으로는 사물이 물결치

듯 휘어져 보이면서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차 예정에 없던 계획으로 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 완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의사를 통해 듣고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고쳐지지 않는 병이지?' 모든 것이 의아했습니다. 근 두 달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은 안보이고 휘어져 보이는 현실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픈 분들을 고치려 애쓰는 많은 의료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상처입은 영혼들을 살리려 오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짐으로, 휘어져 보이는 이 눈이 어찌면 악하고 병든 이 세상을 오히려 바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눈의 질병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제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감격

저는 이제 막 첫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고작 4~5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히 가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동역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매일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로서 멕시코에서 살아온 시간동안, 세상을 구원하고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더 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매일 감격적이고 아직도 신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는지, GP선교회는 저를 왜 선교사로 허입했는지,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은 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에 빛진 자로, 계속해서 은혜 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김요셉 선교사(튀르키예)

## 해먹처럼 흔들리던 침대

침대가 마치 해먹처럼 흔들렸다. 아내가 지진이라고 소리쳤다. 2월 6일 월요일 새벽 4시 17분이었다. 이스탄불에서도 가끔 지진을 경험했지만 이런 강도는 처음이었다. 아내와 나는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약 11시간 거리의 메르신에 내려와 있었다. 22년 동안 섬겨왔던 카르탈 교회를 현지인 Nuh목사에게 위임한 후 약간의 쉬을 위해 2월 3일 메르신에 왔는데 3일 후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튀르키예 한인 사역자회(이하 한사협)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어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안타키아의 안바울 회장과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전화를 했으나 지진으로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어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안바울 회장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카톡이 왔다. 총무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나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교회와 연락 책임을 맡게 되었다.

대사관과 함께 지진 피해지역의 사역자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여행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생사가 파악되었고 다행히 사역자들은 모두 무사했다. 나는 한국선교사협의회(KWMA) 및 미주한인선교사협의회(KWMC)와 접촉하여 튀르키예 지진구호를 위한 공식적인 계좌를 개설하였다. KWMC는 'Global Hope(이하 GH)계좌를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한 계좌로 사용하도록 조치해주었다. KWMA는 직접 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한국교회봉사단(이하 한교봉)과 접촉하도록 했는데 KWMA와 접촉한 지 3일만에 지진 구호를 위한 한교봉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월요일에는 사역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화요일에는 튀르키예 지진 구호 계좌개설에 집중하였다. 수요일에 안바울 회장과 안타키아교회 교인들과 함께 긴급구호물자를 구입하여 안타키아로 향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구호 물품 트럭, 구급차, 구명작업을 위한 대형 구조차량으로 도로가 가득했다. 보통 세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6시간 후에도 목





적지의 반 정도 되는 이스켄데룬에 도착할 정도로서 결국 다시 돌아와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하였다.

안타키아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때 느꼈던 충격은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다. 방문 팀은 제일 먼저 무너진 안타키아 교회에 가서 남아 있는 형제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감사했던 것은 교회 건물은 무너졌으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안바울회장은 안타키아 교회를 17년째 섬겨왔고 지진의 참화 속에서 자신도 지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샅샅이 달아나지 않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려 몸부림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는데 지진 후 생사를 알지 못했던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특히 120명이 넘는 한국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과, 대사님께서도 텐트에서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은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이 구조대원들은 나중에 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 구호기금 계좌개설과 구호활동 시작

여러 곳에서 구호금을 보낼 공식계좌 문의가 들어왔다. 미주와 한국에 지진 구호를 위한 계좌가 개설된 후 독일,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인 사역자

들도 계좌를 문의해 왔다. 한국과 미국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구호금을 받아야 했는데 어려운 부분은 해외로부터 거액의 돈을 현지로 송금 받는 것이었다. 일단 회장의 이름으로 튀르키예 공식계좌를 열기로 하였다.

초기 구호를 위하여 감사하게도 제일 먼저 한사협 계좌로 구호기금을 보낸 단체는 GP와 Global Hope 였다. GH 조용중 대표는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설명한 자료들과 조언을 해 주셨다. 한사협 계좌로 보내온 구호금으로 메르신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안타키아 개신교회 교인중에 메르신 지진 캠프에 들어와 있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카르탈 교회의 성도의 아버지가 메르신에 비어 있는 자신의 집을 흔쾌히 사용도록 주셔서 피해자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지진 캠프의 책임자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

한사협 임원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로서는 지진 구호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지진 구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직, 구호 현금의 객관적인 지출을 위하여 확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업무들이 분배되었고 재정 지출도 더욱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 튀르키예 현지 개신교회지도자의 권

지진 참사 현장



면이 있었다. 터키 개신교 협의회(TEK)는 지난 시리아 난민 구호 활동 당시 명확한 재정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 지진 구호 전면에 나서지 않고 종교 재단과 NGO에 공식적인 지진 구호 계좌를 열어 지진 구호 현금을 받아 구호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TEK는 전체적인 지진 구호사역의 정보를 수집,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돕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한사협도 주도적인 구호사역 보다는 지진 구호사역자들의 정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관리하고, 구호를 위한 재정후원도 한사협 이름으로 받지 않고 창구를 다양화하기로 한사협 정기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갈등과 위기

하지만 임원단 중심으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에 확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진 구호 현금 창구를 다원화한 것은 혼동을 가져온 것 같다. 제일 혼동을 일으켰던 것은 초기에 한사협 공식 계좌를 열었지만 그것을 닫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금 창구의 다원화는 피할 수 없었다. 한국과 미국에 한사협 공식 계좌가 열렸지만 한사협 계좌로는 모금이 매우 미비하였다. 대형교회들은 자신들의 NGO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현지 선교사들과 연결하여 지출하고 있었고, 교단들은 독자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여 현지 교단 지부에 의하여 재정이 집행되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1999년 지진 구호금이 통일된 계좌로 모금된 것

과 달리 이번 지진은 피해 지역이 너무 넓어서 각 교회 NGO 및 교단 선교부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지진 구호사역이 집행된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각 구호팀들 사이에 정보교환이 없었고 특히 TEK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안회장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에 맨 파워가 있었고, 메르신에 함께 의논할 베테랑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타까웠던 것은 99년의 상황과 2023년의 상황이 너무나 다른데 그 때 방식으로 이번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과의 관계였다. 그 때는 한국교회에 NGO가 없었으나 지금은 웬만한 대형교회들이 자체 NGO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99년의 지진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23년의 지진은 11개 주를 강타하여 그 범위가 영국의 국토와 맞먹을 정도로 넓다. 1999년 지진 지역에는 사역자가 없었지만 2023년 지진의 중심지에는 한인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활한 대화가 필요했으나 사역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스탄불과 지진 현장과의 먼 거리는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임원단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스탄불 중심의 사역자 그룹간에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이스탄불 중심의 사역자 그룹들은 현장 파악과 이해와 관용에 있어 부







계속되는 구호



글로벌호프와 함께

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도 재난에 대비한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의 선교사로 이루어진 비상대책 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통 임원 단들은 중견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큰 재난에서는 시니어 그룹이 나서고 주니어 선교사들이 힘을 합칠 때 더 효과적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난 구호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과 재난 상황을 대비 매뉴얼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 건전한 현지인 네트워크 만남

Global Hope의 중동지부 대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구호활동에 따른 재정 지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GH의 지진 구호기금, 교단 지진 구호기금 그리고 개인적인 구좌로 들어오는 지진 구호현금을 관리하며, 후원자들에게 구호활동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재정 보고를 위한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느라 며칠 밤을 새웠다.

구호를 하려면 맨과워가 필요한데 메르신은 내 사역지가 아니다. GP 소속의 선교사들도 대부분 이스탄불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계속 머물면서 구호사역을 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항공료, 체류비용, 차량 렌트 등은 상당한 부담이다. 그래서 GP 선교사들은 본인에게 송금된 지진 구호금을 적절한 구호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로 연합하여 안타키아 안바울 선교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스탄불에는 현지인 네트워크가 있지만 메르신에는 이곳 한인 사역자들의 네트워크 외에는 현지인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재난 구호 기금을 사용해야 할 지 사실 막막했다. 다행히 그리스 정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책임자와 만나 많은 정보를 받게 되었다. 안타키아 고대교회의 5대 교구 중에 하나로 정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



지만 하타이 주 전체에 정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안타키아 정교회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곳의 정교회 교인 약 1천명이 메르신 정교회 건물로 지진을 피해 온 것도 알게 되었다. 메르신 정교회 Coşkun 신부를 비롯, 안타키아 정교회의 Dimitri 신부와 Can신부, 그리고 정교회 종교재단장 John씨, 정교회 청년회장, 부인회 회장 등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돌보고 있는 약 1천여명의 지진 피해자들의 필요를 미약하지만 함께 채우는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 감사했다. 한 신부는 개신교회가 자신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전통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점이 다를지라도 정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임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정교회 지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손길도 있다는 것이었다. 알레비 공동체가 음식을 만들어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동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타종교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 서로 돕고 있었다. 이스탄불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알레비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메르신에서 제일 큰 Cem Evi(공동체)를 찾아가 책임자인 Hasan Ded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 30여년을 독일에서 알레비 Dede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독일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계속된 방문을 통해 함께 구호 활동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알고 보니 지진 피해지역에 알레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알레비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나름대로 구호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다. 감사하게도 각 지역의 알레비 공동체 지진 구호사역의 책임자 명단을 내게 건네주어서 메르신의 Cem Evi와 지진피해자 가족의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스켄데룬의 알레비 공동체 책임자인 Kemal씨와 소통하면서 Arsuz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였고, 이들의 소개로 안타키아의 Defne 지역 Sol Party의 지진 구호 활동 그룹과 연결되어 잘 조직된 맨파워와 함께 구호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한인 사역자들 중에 현지 네트워크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알레비 공동체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진 구호활동에서는 그 지역의 건전한 현지 구호 활동 네트워크들과 함께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진

구호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현지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2월 말에 GH 김휴성 부대표가 방문하여서 더 효율적인 구호사역을 위한 지진지역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따라 GH는 아드야만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거리가 멀어 한인 사역자들의 구호사역이 비교적 적었고, 현지 개신교 성도들로 구성된 구호팀과 현지인 조력자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20여동의 컨테이너 제공

거리가 멀어서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었으나 초기에 식품, 위생용품, 의류, 샤워 및 화장실 컨테이너를 공급하였고, 4월 어린이 날을 기념하여 어린이 사역, 그리고 컨테이너 시티에 20여동의 컨테이너를 제공하였다. 현재는 그곳에 유치원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지진 피해자들의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고, 아드야만 시청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구호품 컨테이너도 들여와 구호하고 있다 구호가 끝나면 선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Defne지역 구호활동

한사협 임원의 역할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람된 것은 한국 교회 총연합회에서 한국 튀르키예 대사관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구호금을 TEK와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교봉의 도



아디아만 어린이

움으로 임원단이 약 1 주일에 걸쳐 튀르키예 지진 구호사역에 대한 리서치를 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고, 이것은 교단 책임자들에게 튀르키예 구호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한교총의 튀르키예 지진 구호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한교총의 튀르키예 지진구호팀이 8월 초에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개신교 협의회와 MOU를 맺고 지진 구호에 협력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구호 사역에 아내도 큰 역할을 했다. 구호지역의 필요 리스트가 확보되면 그 물품을 구입하여 필요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다. 지역의 도매상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약 30%가량 저렴하게 물품들을 구입하여 발송하고, 물품구입비, 트럭비용, 인건비, 연료비, 접대비 등등 항목별로, 후원별로 재정정리를 해냈다. 특히 내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안타키아 지역 교회의 리더 부부 및 현지 구호팀과 함께 식수공급, 무료급식처 식품제공, 의류 공급, 해충퇴치 약품공급 등 필요적절한 구호를 하며 활약했다.

###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기대하라

아직도 지진의 잔해들은 다 제거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1년은 걸릴 것 같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진’이라는 먹구름 아래에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모르고 살았다. 지진을 당한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과 함께 지진 피해자들의 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힘에 닿는 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뒤돌아보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있다.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도 든다. 지진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의 필요에 바로 바로 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뭔가 빠르게 지진 구호에 대해 보고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돕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쉽다.

지진 구호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사실과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튀르키예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무너지지 않은 집을 발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이 닿는 대로 돕고 싶다. 이들이 영원한 집을 발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 제약된 삶, 제한되지 않은 축복

MK 박준용



##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

어느 누구도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 MK)의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MK들은 대개 모국에서 멀리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생활방식을 가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살고 있고, 가족은 부유하지 않으며, 부모님은 선교 현장에서 자주 바쁜 상태이시고, 그 낯선 땅에서 어떤 불확실성과 위험 아래 놓여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방글라데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 때부터 저는 덤고 습하며, 먼

지투성이에다 시끄러우며,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방글라데시 땅에서 살았습니다. 쓰레기는 곳곳에 있었고, 하수구는 넘쳐났으며, 모기와 바퀴벌레는 제가는 곳마다 저를 맞이했고, 사람들과 오토바이, 릭샤와 자동차들은 뒤엉킨 도로에서 서로를 움아 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마 방글라데시에 대한 저의 기억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아름답게 미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어린 저에게 방글라데시는 그냥 저의 집이었습니다.

대학을 위해 한국에 돌아와서야 한국에서 자란 제 또래들과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다른 지를 깊



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저는 꿈꾸기만 했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9년간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제 속에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갈 수 없던 환경

지금 생각해 보면 방글라데시에서의 생활에는 제약이 제법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집밖을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길을 걸어다니는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꼬마였던 저에게는 거리가 너무 위험했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더러웠거나 너무 더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너무나 밀집된 도시여서 제가 뛰어놀만한 들판이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이 학교, 교회, 시장,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세상이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모든 기억은 학교의 조그마한 마당에서 스포츠를 하고, 부모님 몰래 기사 아저씨와 맛있는(하지만 비위생적인) 길거리 음식을 먹고, 집 안을 빙빙 돌며 킥보드를 타고, 1년에 한 번은 13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콕스바잘’ 해변에 갔던 행복한 기억뿐입니다.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위해 현지인들을 자주 만난 반면에, 저는 동생과 함께 몇 번 그들을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현지인들과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했던 현지인이라면 제가 주로 타고 다녔던 차의 기사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다니던 선교사자녀학교의 친구들과 주로 어울렸는데, 그 친구들은 또 다른 한국인이거나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MK들이었습니다.

아마 방글라데시에 살았을 때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거나, 나중에 제가 인도의 기숙학교로 옮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집밖으로 나가 현지인들과 접촉할 만큼 제가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방글라데시는 제가 속한 곳이라기보

다는 외국인으로서 자라며 거주했던 일시적인 환경으로 느껴집니다.

### 2박3일간 기차 타고 전학 갔던 ‘헤브론 스쿨’

하지만 인도에서의 제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다니던 선교사자녀학교에는 중등학교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열세 살 때 저는 ‘헤브론 스쿨’이라는 인도의 기숙사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스쿨은 해발 2100미터 높이의 산 정상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헤브론까지 가려면, 우선 인도 꼴카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첸나이를 거쳐 메투팔라얌까지 가는 기차 3등칸을 2박3일간 타고 가야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180도 구부러진 ‘헤어핀(hair pin)’ 구간을 통과 하며 해발 2,100미터까지 산을 오르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마다 학교에 돌아오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을 하기가 힘들었고, 집에서 가져온 과자 봉지는 기압 때문에 모두 터지거나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빵빵해져 있었습니다. 고도 때문에 한국의 가을처럼 온도가 선선해서 무더운 방글라데시보다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 지역은 읍내수준의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보는 인도와는 달리 덜 혼란스러우면서 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비록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지만, 헤브론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에게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에 걸쳐 약 35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이거나, 적어도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인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숲을 품고 있는 거대한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과 기숙사에 사는 것은 마치 제가 ‘호그와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기 때문에, 수

많은 규칙과 교육철학이 그에 맞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수준은 맛보다는 영양가가 충분한지에만 맞춰져 있었고, 하루에 단 한 봉지의 간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샐러드는 일주일에 세번, 3분동안만 할 수 있었고, 용돈은 일주일에 천원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전자 제품을 소지할 수도 없었고, 집에서 받아온 용돈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푼도 남김없이 학교에 모두 맡겨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학기를 시작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인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학교는 결코 부(富)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학교간 스포츠 대회를 위해 인근의 다른 사립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저희들은 그 학교의 시설과 캠퍼스의 풍요로움에 경외심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헤브론에서 자라며, 저는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외부세계의 소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는 저희에게 없었지만, 낱아 빠진 축구공은 몇 시간 동안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막대기와 운동용 라켓만으로도 캠퍼스 안에서 “뽕! 누구!”라고 외치며 상상의 총격전을 벌이며 즐거워하기도 했고, 주말 외출 때나 사먹을 수 있던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린 10루피 짜리 꽃망고도 너무나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처럼 그곳도 어쩌면 세계 폐쇄적인 환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개 모든 일은 학교 캠퍼스 울타리 안에서 일어났고, 외부 세상의 뉴스와 트렌드에

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좀 더 고학년이 되면서, 규칙은 조금 덜 엄격해졌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용돈을 허용받았고, 주말엔 시내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식도 스스로 통제하며 먹을 수 있었고, 게임기도 어떤 것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더 허용받게 되었지만, 저희는 이미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법도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욕심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인도와 한국의 생활 수준의 차이에 대해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 저는 저희를 돌봐준 선생님들과 기숙사 뎀페어런츠(Dorm Parents)들이 갖지 못했던 좋은 옷들과 신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가진 그들의 것들을 항상 저희와 기꺼이 나누었으며,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폈으며, 저희를 판단하지 않았고, 저희 모두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봉사하며 보다 더 겸손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도 현지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많은 방과후 활동들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대조적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지역에서 온 주방 스태프들, 운전기사 아저씨들, 청소부들뿐 아니라 시내의 몇몇 가게와 제과점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공활한 사랑의 본보기였기에, 학생들 또한 자연스럽게 겸손한 태도를 갖추도록 양육



2009년 헤브론스쿨 입학으로 긴장한 모습



2013년 중간방학



되었습니다.

### 한국에서 받은 역문화충격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결정적으로 오늘의 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초기에, 한국의 문화적 관심이 저와 얼마나 다른지, 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친진난만하고 순박한 시골소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비싼 옷을 소유하는 것,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 외국의 아름다운 곳을 가봤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여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낯설었지만 따라야 할 규범, 지켜야 할 매너, 드러내지 말아야 할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하고, 따라잡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다보니 왜 그렇게 많은 MK와 PK(목사자녀)가 일단 어른이 되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란 '제한된 삶'은 외부세계인 죄의 세상과 엄청나게 대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놓쳤다고 느끼거나, 보호해주던 모든 규칙에 도리어 질려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제 모든 기억들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제게 열린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없이 자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저는 한국을 확실히 더 좋아했고, 엄격한

학교 규칙에 종종 좌절했던 것이 확실히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이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기안84'라는 연예인의 인도 여행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기당할 걱정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스트레스, 언제 어떤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던 동안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한국에 살면서 이제 되돌아보니,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어린 시절이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도 느끼지 못할만큼 아무 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해외로 나가,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면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확실히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MK로서의 제 어린 시절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 소리 없는 전쟁터의 행정선교사

한경성 선교사(한국본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를 채우던 시절, 성전이 내 삶과 가까울수록 편안했다. 청년의 때, 사모를 꿈꾸고 선교사를 소망했으나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주어진 직장을 천직으로 받아들였다. 직장에서의 행정과 조직문화를 익히는 시간은 눈물도 있었지만 즐거움이 더 컸다. 결혼 후 공백기를 갖다가 다시 직장인의 삶을 이어갔다.

2010년, 교회의 선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였다. 1년 동안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교회의 선교부 간사로 임명받았다. 몸담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이 이뤄지다 보니 사역을 지원하는 행정도 만만치 않았다. 감사하게도 직장의 경험이 교회 간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만 4년을 섬기 후 남편과 함께 할 시간을 확보하고 선교를 폭넓게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교회 사역을 사임하였다.

주경야독을 결심하고 몇몇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린 중에 GP선교회를 만났고, GP국제본부 간사로 임명받게 되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배려도 받았다. 반나절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낯설게 시작한 선교단체 본부사역. 탁월한 일 처리는 아니었으나 직장에서의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사 현황, 보고서, 재정, 일반 행정 등 소소한 업무들을 챙기고 익혔다.

본부에 방문하는 선교사들은 사랑, 감사와 따스함이 늘 배어 나왔다. 현장 경험이 없는 내게 선교지

소식을 나누며 마음 깊이 우리나라는 현지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전한다. 본부 사역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는 GP선교회에 근무하며 겪은 가장 큰 문화 충격이다. 선교사가 밥을 사다니!

2020년 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논문 주제는 교회 간사 시절부터 관심 있던 ‘선교행정지원전문가’였다.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썼다. 졸업하고 다시 들여다보니 부족함이 많다.

GP한국선교회 본부 사역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본부사역자마다 환경과 성품이 다르니 잡음은 날마다 일어났다. 그것이 불편하진 않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본부 사역을 지향하기엔 거리가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행정업무들- 각종 증명서, 선지급, 후원금 확인, 선교관 및 차량 대여와 취소-로 이메일, 카톡, 채널은 눈을 땔 수가 없다. 업무 하나를 처리할 때 거쳐야 하는 자잘한 여러 단계는 본부 사역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다.

2021년 11월, GP한국선교회 행정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 교회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2022년 5월, 교회는 선교단체 본부 사역자로 파송하였고, 다시 1년을 보냈다. GP한국선교회가 개설한 국내훈련을 마치고 2023년 4월, GP한국이사회에서 행정선교사로 임명받았다. 행정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현장에 오래 계신 선생님들께 조언도 들었다.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선교사들의 공동체라고 하였다. 선교사를 섬기는 것, 본부 행정의 핵심이다. 확실한 것은 이 분야에도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공동체를 목양하는 심정으로 권면하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신 분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다. 행정선교사로서 기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일터의 삶을 즐기는 그처럼 직장인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GP선교사들과 동행하는 길을 기대한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 평안으로  
제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렐29:11)



GP Korea

**GP한국선교회 98차 정기이사회**

2023년 봄이사회가 4월 25일 장성교회(김재철 부이사장)에서 열렸다. 신임 염천권 이사장을 비롯하여 17명의 이사와 11명의 선교사 및 본부스텝이 참가하였다. 튀르키예 구호헌금에 대한 보고 및 선교사 사역지 변경, 허입 및 재파송, 휴직 및 사임 등의 다양한 안건이 의결되었다.



**GP여성 봄나들이**

11명의 여성선교사들이 5월 18일 중랑장미공원 서울장미축제에 모여 반가운 만남과 함께 삶을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호수아 갈렙 리트릿**

10년 차 이상 남성 선교사들을 위한 리트릿이 6월 6~9일까지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에서 열렸다. 숲과 바다를 누리며 함께 속삭이며 GP가족으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1층 친교실 '공간베리굿'**

1층 친교실이 '공간베리굿'으로 변신했다. 높은 천장과 복층이 있는 카페 분위기로 디자인되어 친교 및 회의 공간으로, 기도회 후 식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간사 사임 및 신임간사**

지난 7년간 한국분부를 섬겼던 김미현 간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세현 간사가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김미현 간사는 단기선교사훈련을 마친 후, 7월 중순 아프리카 E국 GP단기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지역회의 ARM 진행**

중동지역(4월 19~21일) 이스탄불; 라미스지역(5월 5~7일) 비엔티엔; 인도네시아지역(6월 14~17일) 자카르타; 필말호지역(6월 23~25일) 페낭; 일대중흥지역(8월 14~17일) 부산 브니엘교회(김도명 이사); 유라시아지역(6월 2일)은 Zoom으로 진행하였다.

**선교사 동정**

C국 양희석 선교사 사임

## GP USA

### GP USA 상반기 이사회

2023년 상반기 이사회가 5월 1~3일 아틀랜타 잔스크릭한인교회(이경원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12명의 이사들과 함께 이축복, 박에스더, 허창식 선교사가 참석하여 사역들을 보고하였고, 본부사역 보고 및 안건 토의가 이루어졌다.



### GP USA 정기 기도회

매달 첫째주 목요일 Zoom으로 기도모임을 갖는다. 4월에는 아굴라&브리스길라, 5월에는 허창식&허상분, 6월에는 이김&참빛 선교사가 참석하여 후원자와 함께 기도하고 질의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5월 어버이날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하여 본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발송하였다.

### 수습 선교사 훈련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김현기, 최테레사 선교사후보의 본부훈련이 진행되었다.



### 선교사 Re-orientation

K국에서 사역하는 평안 & 회복 선교사 가정의 리오리엔테이션이 6월22일 본부에서 있었다.

### 미국본부 신임간사

지난 2월 12일부터 태은희 간사(사진)가 행정담당 업무를 맡아 수고하고 있다.





## GP Brazil

### 청년 비전트립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명의 청년들이 파라과이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파라과이에 있는 GP 선교사들을 만나 교제하고 땅밋기 기도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수습선교사 훈련

3개월간 총 4명의 훈련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브라질과 페루로 파송되었다.



### 이사회 개최

2월과 4월에 이사회가 개최되어 상파울루의 심성우 목사 (대한성결교회)과 Jose Carlos 목사, Dirceu 목사, Oziel 목사가 GP 선교회의 새로운 이사로 영입되었다. Maria 권사는 사후 재산을 GP 선교회에 기부하여 명예이사로 임명되었다.



### 김혜란대표 모지시 명예시민 수여

브라질본부 대표 김혜란 선교사가 30여년에 걸친 교육사역으로 모지시 의회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모지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다.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인 명예시민상 수상식은 12월7일 시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인력자원 연구개발원

### 2023년 수습 훈련 및 경력 허입 훈련

5유닛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위한 수습선교사 훈련이 2월부터 시작되어 6월까지 진행되었다.

7월10일 ~ 8월4일에는 경력선교사 허입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현장에서 추천된 선교사들이 GP 정신과 역사 안에서 하나의 GP 공동체로 화합하기를 기대한다.



### 경력개발 훈련

6월 26~7월7일까지 진행된 경력개발 훈련에 5유닛과 자녀 7명이 참여하여 함께 울고 웃는 디브리핑과 사업보고 및 계획 등을 나누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 리더십 컨퍼런스

9월 11~16일까지 10년차 이상과 행정 라인에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GP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리더십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또한, 미주의 연례 리더/ FCs 미팅이 9월 6~8일, 한국의 연례/ RLS 미팅이 9월 18~20일까지 훈련원에서 진행되었다.

### ET as BAM포럼

비즈니스 사역 관심자와 준비된 자들을 위하여 10월 6~9일까지 ET as BAM 포럼이 한국에서 진행된다. 내년에는 비즈니스 사역 창업 훈련과 인턴십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 GP 선교사

## GP Korea 지역별 선교사 명단(가나다 순)

C국		
김아급	신학교	하나) 990-194763-524
박주용/이주영	선교훈련원/지도자훈련/한국어	하나) 990-090819-116
서정원/진영	도서출판/한인교회	하나) 990-194764-042
일본		
김송/정은미	일본교회협력/언어훈련/디아스포라	하나) 990-090818-808
노학희/계은화	목회/교회개척/제자양육/ 어린이식당/노인홈	하나) 990-194763-613
민수식/김난영	지역리더/교회/문화	하나) 990-090819-326
박수민/송수아	디아스포라 중국인	하나) 990-090818-951
서진/오은하	일본교회협력/디아스포라/교회개척	하나) 990-090818-943
이윤주/강성현	언어훈련/일본인대상	하나) 990-090820-524
이현옥/김신정	문화	하나) 990-194764-171
임엘리아/인사라	교회/한국어교실/음악교실	하나) 990-090819-536
장상기/장소영	언어훈련/교회개척	하나) 990-194764-074
최주석/이민영	디아스포라협력	하나) 990-090820-677
대만		
김이삭/김진경	대만교회협력	하나) 990-090820-831
장승훈/한은정	교회개척/제자양육/학원전도	하나) 990-090820-823
정한/정민	언어훈련/협력	하나) 990-194763-500
V국		
박순종/정은혜	한인디아스포라교회/교회개척/ 현지인교회협력/장학	하나) 990-090819-002
성결/양선	선교훈련/음악신학교/ 바이블아카데미/NGO/음악학원	하나) 990-090819-155
윤이삭/백리브가	현지교회개척	하나) 990-090819-358
이땅/강물	한국어/말씀	하나) 990-090819-931
임도마/최화평	리더십훈련/신학교/창업선교훈련/ 선교행정연구소	하나) 990-090818-772
정하늘/김소망	교육/언어훈련	하나) 990-194763-710
캄보디아		
김석/이영자	교회협력/찬양	하나) 990-090820-474
이승희/김현숙	교수/교회개척	하나) 990-090820-151
정순행/김지람	교회개척	하나) 990-194764-310
정정미	현지인지도자양육	하나) 990-090820-257
황성규/조신은	교회/반주자양성	하나) 990-090818-968
태국		
곽맹렬/나영혜	교회/센터/카페	하나) 990-090820-104
구홍희/최영이	만나교회/키즈클럽	하나) 990-194763-976
김병순/이지은	언어훈련/교회	하나) 990-090819-365
김정용/이순교	춘부리선교센터/춘부리팔복교회/ 복지장학/목회자훈련	하나) 990-090818-498
김주형/하석미	간짜나부리교회개척	하나) 990-194763-823
김찬홍/주연희	문화/영상미디어	하나) 990-194764-359
김철승/한샘	문화/영상미디어	하나) 990-194764-341
도한성/한수현	비즈니스	하나) 990-090819-601
민윤기/안은자	어린이지도자훈련(CMT)/ ETI Education Center/교회/한국어교수	하나) 990-090818-854
박진진/최정화	교회개척/제자훈련/메콩지역연구	하나) 990-090818-531
서문주	청년/미술치료상담	하나) 990-090819-251
윤제연/김우순	지역리더/현지교회/훈련	하나) 990-090818-847
이원석/박영애	방콕프리카루나교회/ 에벤에셀 기숙사/교육	하나) 990-090819-511
조용/송화숙	교육/교회	하나) 990-090820-887
하태민/신정연	교회개척/터닝포인트센터/ 현지인교회/사역자협력	하나) 990-090818-765
한준수/이옥희	카렌족/태국인교회개척	하나) 990-090818-929
김현우/조하경	언어훈련	

M2국		
신성/김현	교회개척/어린이선교/신학교	하나) 990-090820-175
육대주/이연수	교회개척/교육/신학교/ 지방순회전도집회	하나) 990-090818-780
이재희/김경희	어린이/교회개척	하나) 990-090819-551
전진영/이문영	교회개척/방과후교실/출판	하나) 990-090819-131
L국		
김복만/이복길	장애인교육/복지	하나) 990-090820-660
김창현	한국어교사/양육/캠퍼스	하나) 990-090819-291
백부장/제실	IT센터	하나) 990-090820-781
안드레/김효이	캠퍼스/문서	하나) 990-090818-741
정재형/정봉숙	지역리더/태권도	하나) 990-090819-397
조나단/박사랑	농업공동체	하나) 990-194764-188
S1국		
최미선	교회협력	하나) 990-090820-710
N국		
진실로/오시내	지역리더/학교운영	하나) 990-090819-034
최재원/이양수	가정회복/비즈니스	하나) 990-090820-645
I2국		
김성자	한국어/제자양육	하나) 990-090820-264
남조나단/마리아	지역리더/고아원/교회사역/BAM	하나) 990-090819-899
손미애	교회개척/훈련원/NGO	하나) 990-090819-194
이미경	교회개척/훈련원	하나) 990-194764-117
김애니	언어훈련	하나) 990-194764-149
필리핀		
김명식/정지은	신학교교수/교회개척/목회자제교육	하나) 990-090820-403
문권익/조성일	학원문화/교회	하나) 990-090819-059
원인규/편미선	필리핀선교사훈련원/ 교회개척/카이로스	하나) 990-090818-612
M1국		
남택수/김성애	신학교/정글마을교회지원/제자훈련	하나) 990-090818-982
박택수/김소연	지역리더/MBB가정교회/개인전도	하나) 990-090818-758
사무엘/에스터	언어훈련/M족전도/학교교회협력	하나) 990-090820-182
안인상/이난영	BAM/한국어강의/상담	하나) 990-090819-162
진토룡/한루디아	M족 대화식전도/관계전도/ 지하교회/선교단체	하나) 990-090819-714
호주		
이민교/이미라	동일부 사)Global Blessing대표	하나) 990-090819-073
정영화	호주밀알선교회 민족장애연구소장	
인도네시아		
권순봉/김영매	미전도종족/리서치/지역사회개발	하나) 990-090819-811
김도예	어린이사역자훈련/어린이전도양육	하나) 990-090818-726
김병선/홍은희	미전도종족복음화/강의와 설교	하나) 990-090818-509
김영숙	신학대학교/원주민 바다종족	하나) 990-090818-651
김은석/김선옥	미전도종족코디네이터	하나) 990-090820-111
김재우/김연희	본국사역/캠퍼스	하나) 990-090820-168
김한섭/김영임	성경읽기/문서/빈민구제/유치원	하나) 990-090820-652
김희수	강의/현지인교회협력/공홀/순다족	하나) 990-090818-570
나그네/분향	M/비즈니스	하나) 990-194763-741
박상준/이숙영	한국어/방과후마을/말씀/ 번역및출판/제자훈련/1대1결연	하나) 990-090819-187
안성원/조은숙	교회개척/교육/기도임양운동/ 월간성경읽기책보급/현지선교사파송	하나) 990-090818-516
안영란	한국어강의/미자립개척교회	하나) 990-194763-734
양성연/이미금	청소년그룹홈/미전도종족/교회개척	하나) 990-194763-660
이승남/김미진	언어훈련	하나) 990-194764-398
이승숙	어린이/학교/장학후원/문서	하나) 990-090818-893
신형환/이소옥	교수	하나) 990-194764-221



전영옥/권재익	지역리더/십자가보급/학교/신학교/ 장학후원/NGO협력	하나) 990-090820-296
최권진/정동혜	미전도종족복음화	하나) 990-194764-206
한옥희	기숙사/신학교교수/유치원	하나) 990-090818-562
홍시안	A종족/한국어/주일학교/다음세대	하나) 990-090819-529

### T1국

김생명/최나무	교육센터/제자양육	하나) 990-090819-835
김요셉/서헬렌	교회/양육 및 신학교	하나) 990-090818-676
박말용/허민자	안디옥교회/난민	하나) 990-194764-302
안바울/박조디	안디옥교회/난민	하나) 990-194763-816
엄다윗/윤아비가일	관계전도	하나) 990-090819-422
이바란/김보배	가정교회/한국어강의	하나) 990-090820-870
이우리	한국어교육	하나) 990-194764-035
홍갈렘/최사라	현지교회개척/제자양육	하나) 990-090818-861
홍알리/손하리	한국어강의/현지교회협력	하나) 990-194763-638

### T2국

정아론/최올리비아	지역리더/문화(한국어/음악)/젊은이	하나) 990-090820-378
-----------	---------------------	--------------------

### L2국

박희창	학교	하나) 990-194764-050
-----	----	--------------------

### E국

김미현	언어훈련/난민학교	하나) 990-194763-912
-----	-----------	--------------------

### 러시아

고석부	교회협력	하나) 990-194763-517
김슬기	캠퍼스/청소년/청년	하나) 990-194764-067
박동국/유미경	교회/제자훈련/한국어교육/문화센터	하나) 990-090818-822
임승현/박진영	교회개척/말씀사역/청년사역	하나) 990-090819-543
조동석/곽수희	러시아복음주의신학교/교회개척	하나) 990-090818-587

### I1국

김선복/이한나	교회개척	하나) 990-090819-081
김영현/황혜영	마약치유센터/무료급식소/ 유대인교회개척	하나) 990-090819-590
박에스라/이한나	성경통독/화인교회개척	하나) 990-090819-689
장이사삭/정인나	러시아계유대인	하나) 990-090818-797
제이/라엘	언어훈련/문화	하나) 990-194763-831

### K1국

박은곤/조마리나	현지교회/다민족교회/문서번역	하나) 990-090819-283
----------	-----------------	--------------------

### K2국

장데이빗/채이리나	지역리더/NGO/문화	하나) 990-090819-486
이충만/서수지	언어훈련	하나) 990-194764-327

### U국

이상준/김영미	구제/제자양육/스포츠	하나) 990-090820-339
이샤야2/주의나라	대학교수/한국어교육	하나) 990-194764-334

### 프랑스

최병길/오인애	문화예술전도	하나) 990-194764-195
---------	--------	--------------------

### 조지아

김원규/임영심	교회협력	하나) 990-194764-213
---------	------	--------------------

### 아르헨티나

김우진/박경희	비영리단체통한선교/기업선교	하나) 990-194764-100
황연규/박진희	지역리더/교회/두란노신학교	하나) 990-090819-010

### 멕시코

김은진	가정교회(청년복장)/한국어교육	하나) 990-194763-645
이병호/최형진	언어훈련	하나) 990-090819-582
이승훈/김정은	교회개척/신학교/지역교회	하나) 990-090819-276
허익현/김영중	교회개척/인디언	하나) 990-090819-041

### 브라질

정민규/정수정	제자양육	하나) 990-090819-170
---------	------	--------------------

<b>파라과이</b>		
손경수/임미애	교회개척/제자훈련/문서	하나) 990-090820-353
정금태/이복래	교회개척/학교/신학교/제자양육	하나) 990-090818-605
장주동/정현	학교/현지인교회	하나) 990-194764-238
하홍석/조인혜	교회개척	하나) 990-090819-900

### 모잠비크

이상범	교회/학교/신학교	하나) 990-090819-924
-----	-----------	--------------------

### 에스와티니

루이스/조이	교육	하나) 990-194763-862
--------	----	--------------------

### 탄자니아

임수형/홍혜경	방과후교실/컴퓨터강의	하나) 990-194763-727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원준/유혜숙	교회개척/목회자훈련/코칭과멘토링	하나) 990-090819-671
조동현/신한나	본국사역	하나) 990-090819-220

### 한국

김명호/홍복표	한글교육/교회	하나) 990-090820-571
김청해/임하리	중국인유학생	하나) 990-090819-027
김혁수/최다니엘라	이주민	하나) 990-090819-721
김형철/박인숙	이주민	하나) 990-090820-314
김휴성/이나영	NGO/교회개척/필리핀신학교	하나) 990-090819-098
박상배/이현숙	지역교회협력/유학생전도/제자훈련	하나) 990-090818-594
신성복/김봉연	교회개척	하나) 990-090820-710
신장/김세라	교회개척/이주민	하나) 990-090819-237
심부름/조이스	본국사역	하나) 990-090818-886
이빌립/이룣	영성훈련원	하나) 990-090818-691
이샤야/김사라	베트남 이주민	하나) 990-090818-669
이요한	전주국제상호문화연구소/ M사역훈련/동원	하나) 990-090818-830
이우용/백은화	태국이주민/이주민교회연합	하나) 990-090818-719
전은표	훈련동원/카이로스	하나) 990-090820-190
최진웅	이주민	하나) 990-194763-549
함마태/리브가	의료/문서/소수민족/교육/ 미주CBC방송국특파원	하나) 990-090819-123
현혜영	이주민	하나) 990-194763-677

### 한국 본부

김동진/배영혜	GP Korea 대표	하나) 990-090818-990
김재복/손태숙	훈련동원	하나) 990-194764-011
육도/조은샘	다잇소/멤버케어	하나) 990-090819-447
이미로	언어훈련/선교관/차량	하나) 990-194763-855
이영선	안전/위기관리	하나) 990-194764-028
이현영	출판	하나) 990-090818-911
주희경	MK	하나) 990-090819-625
한경성	행정	하나) 990-194763-920

### 인력개발&연구개발원

박종승/강병욱	인력자원&연구개발원장	하나) 990-090818-733
경의영/양희윤	인력자원&연구개발원 부원장	하나) 990-090820-773
이희은	MK	하나) 990-090819-341

### 수습선교사

함인선		
-----	--	--

### GP USA 지역별 선교사 명단(가나다 순)

#### C국

이반석/정한샘	복지후생/공홀	하나) 990-090819-696
이전세/이소리	고아원/지도자훈련	하나) 990-090818-975

#### 몽골

썬/샤인	캠퍼스/교수사역	하나) 990-194763-809
------	----------	--------------------

일본		
김미숙	의료/전도/교회협력	하나) 990-090819-792
함제임스/함린다	제자훈련/교회협력	하나) 990-090819-664

대만		
아글라/브리스길라	지도자 훈련/MK학교/현지교회협력	하나) 990-194763-556

V국		
변프랭크/변세라	캠퍼스/제자훈련	하나) 990-194764-245
변한나	영어교육	하나) 990-090819-504
조영문/조금심	미전도종족/목회자훈련	하나) 990-090819-739

캄보디아		
황순현/황현주	의료/어린이/학교	하나) 990-194763-606

태국		
김바울/김은정	영어성경공부/Global Hope	하나) 990-090819-148
김찰백/홍은옥	현지교회협력/영어교실/카페/영농	하나) 990-194763-944
이노웅/이은아	미전도고산지역 교회개척/신학교/고아원	하나) 990-194763-563

M2국		
정시나	현지교회협력/바이블타입/교육지원	하나) 990-090819-380

인도네시아		
김정태/김경숙	언어훈련	하나) 990-194764-284

N국		
최동욱/최향숙	교수사역/캠퍼스	하나) 990-090819-657

MI국		
권태산/심정수	BAM	하나) 990-090820-218

T2국		
윤요셉/윤마리아	BAM	하나) 990-090819-066
박우리/모두	BAM	하나) 990-194764-245

러시아		
김홍장/김윤덕	제자훈련/아버지학교	하나) 990-194764-260

J2국		
김현수/고봉주	BAM	하나) 990-194764-277

K2국		
평안/회복	교육/금출	하나) 990-090820-517
이김/이찰빛	제자훈련	하나) 990-194763-684

멕시코		
박기훈/김혜원	성경공부(Coffee Break)/청소년	하나) 990-090820-271
박영완/정기영	교회개척/청소년/신학교/현지사역자 훈련	하나) 990-090818-620
전재철/전순혜	지도자양육/금출	하나) 990-090819-746
지용한/지경애	국제학교/현지교회협력	하나) 990-090820-766

브라질		
이경승/정다운	언어연수/미자립교회지원	하나) 990-194764-156
이영대/이애립	신학교/현지교회 선교동원	하나) 990-090819-269

페루		
장인성/장에스터	어린이/제자훈련/가정교회	하나) 990-090820-346

과테말라		
신동훈	교육	
최남용/최형미	신학교/국제학교	하나) 990-090819-778
최테레사	언어훈련	

온두라스		
최명식	음악사역	하나) 990-194763-773

탄자니아		
최재명/방경순	신학교/제자훈련/교회개척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성수/권희숙	교회사역/학교(공동생활)	하나) 990-090819-640
허창식/허상분	교회개척/유치원/신학교/제자훈련	

미국 본부		
배선호/배아일린	GP USA 대표	하나) 990-090819-461
강영훈/강신애	GP USA 총무	하나) 990-090819-632

미국		
김승봉/유영선	IGP/SICAP	하나) 990-090818-701
김현기	미디어 사역	
박에스터	디아스포라/신학교/다인족교회	하나) 990-090818-879
이다윗/이안나	비거주/현지지도자훈련/화교교회	하나) 990-090818-683
이은무/박대련	교수사역(GCU)	하나) 990-090818-481
이축복	디아스포라/난민	하나) 990-090820-289
정광성	영어교육(ETI)	
조용중/최경련	KWMC/Global Hope	하나) 990-090818-548

GP Brazil 선교사 명단		
------------------	--	--

I2국		
Anyelen	VISA 준비중	

아르헨티나		
Brian	교육	

브라질		
지종승/이성남	교회개척	
김신영(Cindy)	교육/BAM/본부 지원사역	하나) 990-194763-951
김성순(André)/김영채(Lana)	BAM/교육/본부 지원사역	하나) 990-194764-291
Jonathan/Andrea Tamara	브라질 교회/ BAM/ 본부 행정 음악학교	

파라과이		
김정호(Hoya)/김은경(Melanie)	한인교회/ 제자훈련	하나) 990-090820-613

페루		
황종태(Nio)/김아름(Elena)	BAM/선교동원/청년 컨설팅	하나) 990-090820-588
Ronal/ Nohemi	교회/미디어선교/신학교교수	
김희영(Raquel)	학업중 (휴직)	하나) 990-194763-969
이민규(Pablo)	BAM	하나) 990-194764-373
Darvin	BAM	
Antony	BAM	

모잠비크		
Benício/Margarida	목회자재교육/교회개척/리더교육/사회복지	

카메룬		
Titian/Adriana	교회개척/교육	

기니비사우		
김영광(Glory)	성경출판/교육	하나) 990-194764-366

브라질 본부		
김혜란(Helena)	GP Brazil대표	하나) 990-090818-644

수습선교사		
Jessica/Anderson Deneise		

# GLOBAL PARTNERS

## 이사회

### GP Korea

증경이사장	김달수 박병창 김인중 노상현
이사장	염천권
부이사장	김재철 남능현 남명철 신금용 이승섭
서기	박지용
부서기	김정일
회계	박동우
총무	김동건
협동총무	이재성
수도권지역총무	홍승영
영남권지역총무	박무열
호남권지역총무	이한석
충청권지역총부	손근석
일반이사	김남순 김동건 김완겸 김용태 김원수 김진석 김창환 김철수 김태규 김학순 나동우 문창욱 박말용 박승남 박의서 박인용 신정엽 오원현 우상두 윤성원 윤해옥 이무형 이연희 임하영 장치만 정찬홍 최인호 최종천
후원이사	김도명 박영숙
직능이사	김재복 조흥국
명예이사	김병선 안성원 장영호
전문위원	김성건 김인호 김태균 김향순 이유경 임국진 조창근

### GP USA

이사장	양성일
본부장	배선호
부이사장	고현종 김대영 정영민
실행이사	김영진 김영하 김한요 남성수 배선호 백은영 손기호 송병일 송상철 안창호 안창훈 양춘길 이경원 정동혁 현지용
명예이사	서창권 이은무 정광성 조용중 김승봉 유영기
후원이사	김형수
직능이사	이영찬 주인석 백영은

### GP Brazil

이사장	Luiz Pinheiro
부이사장	Ildo Alves Dias Yong Shik Kim
서기	Roseli Kono
부서기	Joel Ferreira
회계	Hye Ran Kim
감사	Andrew Kim Patricia Correa
일반이사	Luiz Araújo Valdomiro Vieira Seung Woo Sim Oziel Nascimento Jose Carlos Junior Maria Garcia Dirceu de Souza
후원이사	Debora Kim Bruno da Silva Siqueira

## 후원안내

### GP 한국선교회

E-mail	info@gpkorea.org Tel 02-443-0883
주소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7
후원계좌	하나은행 210-890044-14105 제)글로벌파트너스선교회

### GP 미국선교회

E-mail	admin@gpusa.org Tel 714-774-9191
주소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후원계좌	VENMO : 검색란에 GP-USA Inc 아이디를 찾으시고,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메모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gpfinance@gpusa.org) ACH: Routing Number: 122043602, Account Number: 07409881 메모란에 후원하기 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gpfinance@gpusa.org)

### GP 브라질선교회

E-mail	missaogp@gmail.com
주소	Est. Municipal Yoneji Nakamura, 01, Bairro Taboão, Mogi das Cruzes, SP. BRAZIL. CEP 08772-011
후원계좌	ITAU은행 지점번호 7642
계좌번호	일반예금 ContaCorrente 12896-6 Missao GP Brasil

\*첫 송금 후에는 보내신 본부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P의 사명선언문

GP의 사명은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 선교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홈페이지 [gpinternational.org](http://gpinternational.org)  
미국 [www.gpusa.org](http://www.gpusa.org)



## 정기 기도회 안내 PRAY FOR NATIONS

GP 한국선교회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 10시  
GP 한국 본부 지하1층

GP 미국선교회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  
GP 미국 본부 사무실